

'26. 8. 14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태

- “정청래 암살단 모집” 테러 모의 일당 2명, 불구속 송치
 - 8.6 언론은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에 SNS 단체방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‘암살단 모집’등 테러를 모의한 일당 2명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보도
- “한강공원 폭탄 설치, 천만 원 달라”...경찰, 협박글 작성자 추적
 - 8.10 언론은 지난 9일 ‘여의도 한강공원에 폭탄을 설치했으며, 1,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’라는 테러 예고 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특공대 배치 및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보도
- 파키스탄, 보안군 대테러작전으로 남서부의 무장세력 소탕전
 - 8.10 언론은 파키스탄 정부의 보안군이 폭탄 테러 등 테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일 남서부 발로키스탄주 일대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 무장세력의 민병대원 15명을 섬멸했다고 보도

미 주

- 미국, 이란 자금세탁, 가상화폐 거래소 제재
 - 8.8 언론은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정권을 위해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올해만 8번째 제재로 자금은 도박사이트 등을 통해 세탁되어 가상화폐로 이란 정권에 제공됐다 보도

○ 콜롬비아, 대통령 취임 후 하루 만에 연쇄 테러...3명 사상

- 8.9 언론은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차량·드론 등을 이용한 연쇄 테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, 군 당국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(FARC) 반군 분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 보도

유럽

○ 러시아, 드론업체 대표 차량에 폭탄 테러 중태...또 후방 뚫려

- 8.6 외신은 전과 방해에 강한 광섬유 드론 '우피르'를 제조해 러시아 군에 납품해 온 '우랄드론자보드'의 「블라디미르 트카추카」 대표가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차량 폭탄 테러를 당해 위독한 상태라고 보도
- ※ 언론은 모스크바 식당 폭발에 이어 사흘 만에 발생한 사건으로 우크라이나는 배후를 부정하였으나, 러시아 후방을 겨냥한 양측의 보복 타격이 격화되는 양상이라 부언

○ 독일, 공항에 폭발물 탑재 드론까지...독일 정부 “새로운 차원 위협”

- 8.7 언론은 독일 동부 「라이프치히-할레」 공항에서 폭발물이 탑재된 드론이 발견되자 독일은 드론위협은 과거에도 있었지만,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은 “새로운 차원의 위협”으로 평가하였다 보도
- ※ 독일은 이번 사건을 ‘하이브리드 공격’이라 규정하면서 폭발물의 세부 사항, 드론 출처, 사건의 배후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라 언급했다 부언

중 동

○ 시리아, 수도 외곽서 미니버스 폭발...“최소 2명 사망·10여 명 부상”

- 8.7 언론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서 미니버스 내부에 설치된 폭발물이 폭발하여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3명이 발생하였으며, 폭발 경위와 배후 자처 세력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중이라 보도
- ※ 시리아는 지난 2일 다마스쿠스 카페에서 폭발, 지난 7일 프랑스 대통령 체류 호텔 인근에서 연쇄 폭발 발생 등 산발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카흐타니아 폭탄 테러(Qahtaniyah)

- '07. 8. 14,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 신자르(Sinjar) 인근의 카하타니아(Qahtaniyah) · 자지라(Jazeera)에서 알카에다 추정 세력이 소수 민족인 야지디족 대상 차량 폭탄 테러를 감행, 796명 사망 및 1500여명 부상
 - 민간인이 밀집한 주거지에 폭발물을 2톤 탑재한 트럭과 유조차 등 차량 4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킨 사건으로, 허술한 진흙 가옥들이 충격파로 무너지면서 마을 전체가 초토화
- 알카에다는 소수종교 ·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이교도로 보아 보복성 증오 공격을 감행했으며, 알카에다가 자행한 테러 중 단일 사건으로는 9·11 테러 이후 두 번째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사건

테러 상식

< 신생·신흥 테러 단체 > (Extremist Networks)

1. 764 Network

: 온라인 기반 신종 극단주의 단체로 미성년자를 주 타겟으로 삼아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해, 동물 학대, 자살을 유도하고 대형 폭력 테러 모의까지 감행

2. 라쿠라와 (Lakurawa)

: 아프리카 사헬의 신흥 이슬람 무장 단체로 이슬람 칼리프국 수립을 목적으로 기존 보코하람, ISWAP 등이 장악하지 못한 지역을 공략, 세력 확장

3. 테러그램 콜렉티브 (Terrorgram Collective)

: 극우 네오나치 디지털 테러 단체로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백인 우월주의, 반유대주의, 신나치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'온라인 테러 단체'

4. IS-모잠비크 (IS-M) 및 IS-콩고민주공화국 (IS-DRC)

: ISIS의 신흥 아프리카 세력으로 중동에서 세력이 약화된 ISIS(이슬람국가)가 아프리카 대륙으로 세력을 통합 · 확장 중

* 신생 테러단체의 핵심 트렌드

- 디지털화와 연령 저하: 무기와 영토 없이 오직 인터넷 공간(텔레그램, 디스코드 등)에서만 포섭 활동, 특히 미성년자(10대) 비중이 급격히 증가
- 소프트 타겟 겨냥: 국가 시설보다 일상의 일반 민간인을 노리는 테러